

# “부처님 닮은 삶으로 안내”

## 불교진흥원 20년 기념 '미래사회를 향한 불타의 가르침'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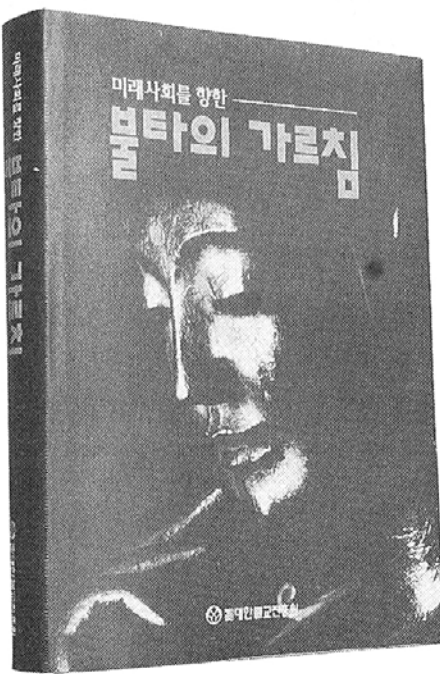
어떻게 해야 부처님답게 사는 것일까. 모든 불자들의 고민거리 가운데 그 중심에 자리 잡은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해답은 간단하지 않다.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실현되고 확인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이럴 때 이렇게 하셨구나'가 해답이다.

대한불교진흥원이 창립 2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사회적 제현상을 불교적 시각에서 분석, 모든 불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여 생활할 수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제2장 '불교와 현대사회'이다. 가장 교육 과학 정보통신 등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매일 마주치는 문제와 변화하는 미래사회는 어떤 모습일 것이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14개의 주제로 설정, 각 주제에 대한 불교적 견해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의 편찬동기는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한 불교적 처방은 무엇 인지를 정리하고 밝혀내다'는

이 책의 구체적인 규모와 윤곽을 정하고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했다. 각 부문 편찬위원은 강건기교수(전북대) 권기종교수(동국대) 정병조교수(동국대) 등이 참여했으며, 다시 편찬위원이 책임집필위원이 되어 각각 맡은 분야별로 별도의 집필위원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각 분야별로 고준환교수(경기대) 김용표(동국대불교문화연구원) 방귀회(작가) 연기영교수(동국대) 등 35명이 집필에 참여했다.



상 우리의 삶을 밝히는 등불로 피어났다'며 불교를 오늘의 시

대를 이끄는 가르침으로 살려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바른 신행·사회 문제 불교적 해답 제시

있도록 한 불자들의 생활지침서 <미래사회를 향한 불타의 가르침>을 펴냈다. 어떻게 하면 부처님답게 살 것인가에 대한 모퉁이며 해답이다.

모두 3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제1장 '불교란 무엇인가'에서 불교의 기본적인 입장을 밝혔고, 제2장 '불교의 신행'에서는 불자로서의 마음가짐과 올바른 신행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것으로, 지난 92년 개최된 대종교교사 제4차 전국대회에서 '당면한 현실과 경전의 가르침 사이의 시대적 거리를 매꾸어야 한다'는 시급한 필요성에 따라 우리시대의 '불교결집'이 제안되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생한 삶의 지침으로 살려 내야 한다는 문제의식의 소산이었다.

이 작업을 위해 편찬위원회(위원장 연기영)를 구성하여

대한불교진흥원 서동각 이사장은 발간사를 통해 "참다운 불자로서의 사명은 진정한 대승불교의 구현을 통해 현사회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것"이라며 "불자들이 이 사회를 어떻게 이해하며,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를 제시하기 위해 이 책을 펴냈다"고 밝혔다.

또 이기영 편찬위원장은 "부처님은 생생한 삶의 현장을 중요시하였고 그의 가르침은 항상

할 참된 방향과 그것을 수용해야 할 이 사회의 질적 변화를 선도해야 한다. 정보사회가 필연적으로 겪게 될 초고속화, 대량화, 정보물산의 물결이 인간의 가치를 제대로 발현할 수 있는 여건으로 작용할 수 있는가라는 것은 불자들의 큰 관심사이다.

불교는 정보화시대의 바른 철학과 윤리를 제공하는 희망의 보루이며 목표이다. 이는 광정도의 실천으로 구현될 수 있다.

과 마찰을 갖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종교가 자신의 광창의 지만 견지하게 되면 하나의 사회 이익집단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한다.

불교에서는 종교의 기능을 뜻목에 비유하고 있다. 불교는 진리에 대한 독단과 종교 자체의 절대화를 용납하지 않는다. 바람직한 종교간의 만남을 위하여 불교가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 본질적인 관용의 자세이다. '길은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라는 종교의 본질

### '미래사회를 향한 불타의...' 내용 요약

<미래사회를 향한 불타의 가르침>은 사회 각 분야에 대한 불교적 견해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2장 '불교와 현대사회'에서 설정한 14개의 주제는 불교인은 물론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의 공통된 고민이며 풀어야 할 화두이기도 하다.

가정, 교육, 환경과 생명, 미래의 불가, 노동, 일상생활, 사회윤리, 복지, 과학, 사회와 국가, 문화, 정보통신, 미래사회, 타종교에 대한 주제 가운데 주요부분을 소개한다.

인생의 동반자를 구한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생을 살아가는 데는 환갑 고의 회춘제 등 중요한 매듭들이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삶을 돌아보는 계기 △가족간의 화합과 단결을 재확인하고 △나눔의 장이 되어야 한다.

당한 노력을 기울인 뒤에 정당한 이익을 요구해야 한다.

노동자는 무진(無價)의 윤리를 간직해야 한다. 부당한 행위를 벌여놓고 단지 열악한 근무환경과 저임금에 대해서 분노한다면 그것이 버려야 할 분노이다.

노동자와 경영주는 함께 은(恩)의 윤리를 공유해야 한다. 상대가 있음으로 자신이 존재

### 노동

노동은 삶을 지탱하는 가장

### 가정은 애정 결합만이 아닌 '큰 나' 찾아가는 진리공동체

**가정**

가정은 진리를 실천하고 각자의 인격을 도모하는 진리공동체, 즉 하나의 승가를 의미한다. 따라서 평등에 입각한 작은 나를 버리고 큰 나를 찾아가는 가정생활, 이것이 불교적인 가정생활을 완성하는 것이다.

결혼은 단순한 애정의 결합만이 아니다. 인생의 희로애락을 함께하며 진리를 추구하는

은혜로운 활동이다. 사람들 대부분이 건강하고 선한 노동에 종사하면 건전한 역사발전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불교는 공존의 윤리를 강조한다. 노사간의 갈등을 넘어 공존의 윤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쌍방의 노력이 요구된다.

경영주는 무탐(無貪)의 윤리를 견지해야 한다. 노동자의 주체성을 확보해주는 등의 정

한다는 사실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보통신**

오늘 우리는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옮겨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 일상적 삶을 영위하기 위한 제반요소 중에 정보가 매우 중요한 자리를 점하게 되었으며, 이 추세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불교는 정보화가 추구해야

### 불교는 정보화의 참된 방향 선도하는 '윤리의 보루'

**타종교에 대하여**

현대는 상대주의의 시대이다. 상대화된 종교들은 절대신념체제와 절대가치관의 기능을 가졌던 전통사회에서의 종교와는 달리, 전체사회의 한 구성요인으로서 각각의 존립과 번영을 추구한다.

따라서 종교간의 갈등과 마찰이 불가피하게 된다. 현대사회에서는 종교들이 서로 갈등

에 대한 통찰에 입각한 관용이다.

둘째, 언어와 논리의 결손이다. 셋째, 종교간의 만남의 광장으로 우리는 말이 끊어진 자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지리는 소아적인 '나'가 빈자리이며 나와 남이 하나된(自他不二) 자리요, 사랑과 자비의 원천이다.

정성운 기자

### 학 제 의 책

#### 인도문화의 이해

이은구 지음

인도는 불교의 발상지이며, 세계4대문명의 발상지 가운데 하나로 수천년의 전통과 역사를 간직한 나라이다. 또한 불타 간디 네루 타고르 등 위대한 인물이나 여타 많은 이유로 해서 우리에게 상당히 매력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인도문화의 이해>는 인도의 역사 사회 문화 예술을 소개한 인도학 입문서. '인도의 민족과 언어' '인도 역대

왕조의 정치와 경제' '인도 사회와 카스트제도' '인도의 철학' 등 7장으로 구성했으며, '인도의 종교'에서는 인도에서 생겨난 모든 종교와 인도문화에 많은 영향을 미친 이슬람교를 인도적 상황에서의 문화유입이라는 측면에서 살피고 있다.

불교 쇠퇴의 원인과 관련해 저자는 불교가 쇠퇴했다기보다는 인도사상의 큰 물결기에 합류한 것이며, 불교의 가르



침의 대부분은 인도사상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세창출판사, 1만2천원>

### 문체부 추천도서 내달 17일까지 접수

문화체육부는 '제28회 문화체육부 추천도서'를 10월 17일까지 접수한다.

출판사의 양서류출판 의식고취와 국민독서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해 실시되는 추천도서 선정기준에는 총류 역사 종교 철학 문학 예술 사회과학 과학기술 아동 청소년 만화 번역 등 10개 분야이며, 모두 1백종 내외를 추천도서로 선정한다.

선정대상 도서는 지난해 9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발행되어 문체부 납품을 위한 신청도서이다. 신청서교부 및 접수는 대한출판문화협회(735-2701)에서 하며, 추천도서로 선정된 도서는 문체부에서 일정량을 구입하여 전국 공공도서관과 해외문화원 등에 배포한다.

티벳불교를 체계화한 중카바스님의 저술로, 티벳에서는 라마승이 되기 위한 필수학문으로 <진언도차제광론(眞言道次第廣論)>과 함께 가장 뛰어난 저서로 꼽힌다. 중론 연구에도 필독의 문헌이다. 보급문의는 진각종 총교부(913-0751)와 민족사(732-2403).

**포교사교시 예상문제**  
**포교원, 불교대학등 배포**  
조계종포교원(원장 정락)에서는 <포교사교시 예상문제집>

을 발행, 배포하고 있다. 오는 10월 실시 예정인 포교사교시에 맞춰 발행한 이 책에는 '부처님의 생애' '불교의 근본교리' '한국불교사' 등 10장으로 구성, 모두 819문항을 수록했다.

부록으로는 조계종총회와 포교법 사찰 운영위원회 신도법을 실었으며, 전국 34개 불교대학에서 배포한다.

**'진흥원 20년사' 발간**

대한불교진흥원은 <진흥원 20년사>를 발간했다. 이 책에는 75년 진흥원 설립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설립 및 발전' '사업현황' '전망과 과제'로 나눠 실었다.

### ◇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역자	출판사
1	달마의 제자들	고우영	불지사
2	삼에서 깨어나기	틱낙한	장경각
3	한글어합경	고익진	동국대출판부
4	소설 선	고은	창작과 비평사
5	기독교와 선	라즈니쉬	정신문화사
6	영가 천축언어	석성우	토방
7	무엇하러 왔는지	덕선	미학사
8	인식론·논리학	서구대(譯)	불교시대사
9	절로가는 마음	신영훈	책만드는 집
10	정통선의 향훈	정화	유지출판공사

구입문의: (02)737-0695

### '보리도 차제광론' 한글판 대만독자에게 의해 보급

티벳불교 연구의 귀중한 문헌인 <보리도차제광론(菩提道次第廣論)>이 대만의 해해불교문화기금회에 의해 한글로 번역 출판돼 우리나라에 보급된다.

<보리도차제광론>은 15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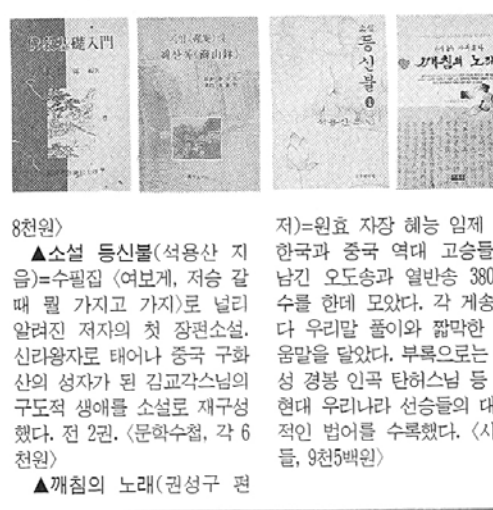
### 새로나온 책.....

▲불교기초입문(장인석 지음)=불교는 철저히 인간을 중심으로 한 종교라는 입장에서 저술한 불교입문서. '불교란 무엇인가' '석존의 생애와 수행' '불교신도의 일반상식' 등 12장으로 구성했다. <한국불교통신대학, 5천원>

▲해산록(海山錄, 이동항 지음)=조선중기의 유학자이며 서예가인 이동항(1736~1804)의 금강산 기행문. 당시 금강산의 장안사 표훈사 유점사 마하연 오세암 등의 정경과 유물·유적에 대한 관찰기가 실려 있다. 홍익대 국문과 최강현교수 번역. <국학자료원, 8천원>

▲소설 등신불(석용산 지음)=수필집 <여보게, 저승 갈 때 뭘 가지고 가지>로 널리 알려진 저자의 첫 장편소설. 신라왕자로 태어나 중국 구화산의 성자가 된 김교각스님의 구도적 생애를 소설로 재구성했다. 전 2권. <문학수첩, 각 6천원>

▲깨침의 노래(권성구 편



저)=원효 가장 해는 일제 등 한국과 중국 역대 고승들이 남긴 오도송과 일반송 380여 수를 한데 모았다. 각 계승마다 우리말 풀이와 짙은 도움말을 달았다. 부록으로는 용성 경봉 인곡 탄허스님 등 근현대 우리나라 선승들의 대표적인 법어를 수록했다. <사람들, 9천5백원>

책방 여시아문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737-0695 / 팩스 : 737-0696

## 길 찾는 이의 도반, 책방 여시아문

독자와 함께 하는 독서회원제

책방 여시아문의 회원이 되시면 언제든 필요한 서적을 편리하게 구입하실 수 있으며 본 책방에서 발행하는 신간 안내 소식지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책방 여시아문은 고객의 입장에서 책에 관한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해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사와 책방 여시아문이 주관하는 다양한 행사에도 회원 여러분을 최우선으로 모십니다. 회원가입은 책방에 비치된 신청서 및 전화, 팩스로 신청해 주십시오. 가입비는 무료입니다.

매월 발행하는 독자들의 귀와 눈 "책방 여시아문 소식지"

매월 15일 발행하는 여시아문 소식지는 불교 서적에 관한 최신 정보를 가득 담고 있습니다.

- 새로 나온 책-각종 불교서적 및 불교 관련 신간을 빠짐 없이 수록하였습니다.
- 독자가 뽑은 나의 불서-애독자와 함께 추천하는 불서
- 불교 출판 편집자가 뽑은 명저-불교서적 출판에 온갖 정성을 다하는 불교서적 전문 출판 편집자가 추천하는 불서
- 책방 여시아문이 뽑은 이달의 책-본 책방에서 양서라고 검증된 불서만 가려 뽑았습니다.
- 불교 출판사를 찾아서-불교 출판 문화 발전에 항상 노력하고 있는 불교 출판사 탐방
- 베스트셀러 20선-책방 여시아문 월간 판매 집계 20선
- 책방 여시아문 자세히 보기-독자 여러분께 보람이 되고자 본 책방 소장 영인본, 희귀본, 절판본을 계속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항상 독자를 찾아가는 통신 판매

지방에 계신 독자나 산사의 스님, 책방에 나오시기 어려운 분을 위해 통신 판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 주문은 전화, 팩스, 우편으로 신청하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송료는 책방 여시아문에서 부담합니다.

찾아오시려면

경희대 문주사 부속 현대불교신문사 평화당 조계사 인 책 인 책 인 책 인 책 인 책

종로구 여시아문